미얀마 불교계 군부 쿠데타에 비판 성명

1월 26일 반대표명…
일부 스님 구금조치 당해

2015년 문민정부 1기 수립해
실권은 군부가 그대로 장악
2020총선 후 문민2기 출범에
쿠데타, 불교계 움직임 이목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07년 민주화 운동 당시 거리에 나선 미얀마 스님들의 모습. 사진출처=로이터통신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인사를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7년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불교계에서 쿠데타 예고에 반대성명을 냈지만 강행된 사태로, 군부는 현재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일부 스님들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2월 1일 성명을 통해 주요인사 구금조치를 실행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장차관 24명은 군부인사로 모두 바뀌었으며 양곤국제공항 또한 5월 말까지 폐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는 2015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가 총선에서 압승하며 문민정부 시대를 연바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도 NLD가 전체의석 83.2%를 석권하며 2기 시대를 예고했다.

이번 군부 쿠데타는 실권을 쥐고 있었던 군부가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차이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일으킨 것이다. 2007년 군부에 대항해 1만명의 스님들이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미얀마 불교계는 이번 쿠데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미얀마 승려연합'은 쿠데타 예고에 1월 26일 "평화롭고 법대로 정의롭게 진행하길 당부한다"며 박단다 꾸마라 비원다 연합회장, 박단다 신디마 비원다 연합회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미얀마 불교계는 사태 추이를 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군부는 미얀마 민주화를 이끌던 쉐냐와 스님을 구금했다.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에 국가 비상사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거리로는 나서지는 않고 있으며 사회거부운동이라 하여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드리는 등 소음으로 불복종을 표현하고 있다.

최근 UN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미얀마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미얀마 불교계 역할에 전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미얀마는 1962년 네윈의 쿠데타 이후 53년간 군부 통치를 받아왔으며 이에 시민들은 민주화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1988년 민주화 운동 때는 군부의 강경진압으로 2000여 시민이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 1988년 8월 8일에 일어나 8888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른다.

1990년 선거가 진행돼 민주화 진영인 NLD가 압승하지만 군부는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헌법이 정지된 상태서 군부 독재를 계속했다.

이에 1996년과 2007년에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진행됐다. 미얀마 불교계는 2007년 대대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日, 세츠분(節分)행사 축소 진행

각 사찰별 특별 기도회 봉행, 참배객 축소

불교세시풍속이 다양하게 남아있는 일본. 매년 봄 입춘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세츠분(節分)의 풍속도도 코로나 19로 인해 크게 바뀔 전망이다. 1월 30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코로나 19 시국 속 각 사찰과 가정에서 진행될 세츠분 행사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입춘 전날을 세츠분(節分)이라 하여 다양한 세시풍속이 전한다. 예로부터 봄에 들면서 여러 돌림병이나 기근이 돌던 것에서, 이를 피하고 장애가 없는 봄을 맞이하길 바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볶은 콩을 나이 수대로 먹고, 도깨비로 분장한 가장에게 콩을 뿌리며 역병과 불운을 쫓아내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때에 흔히 "복은 안으로 들어오고, 도깨비는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외친다. 각 사찰에서도 불전에 축원한 콩을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산문에서 콩을 뿌리는 등의 풍습이 전한다.

한편 코로나19가 심각한 현 시국에서 세츠분 행사의 모습이 대폭 바뀔 예정이다. 매년 절분 기도회와 행사에 4만여 명이 방문하는 오사카의 신쇼지 별원은 "올해 세츠분 행사는 경내 법당에서만



불전에 올릴 콩을 준비하는 스님. 사진출처=니혼게이자이 신문

콩을 뿌리고 특설무대 등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쇼지 별원 측은 "축원한 콩을 배포하는 것은 수량을 확대, 예년의 3배인 3만 2천 봉지를 참배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의 고찰인 죠조지(增上寺) 역시 콩 뿌리기를 중단했다. 죠조지 측은 "사찰측에 남은 기록상에서 세츠분 행사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죠조지는 작년 가을 시점에서 장기화에 대비해 세츠분 행사용 콩의 주문을 예년보다 대폭 줄인 상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닛코(日光)의 린노지(輪王寺)측도 참배객들과 함께 경내에서 콩 뿌리기를 중단한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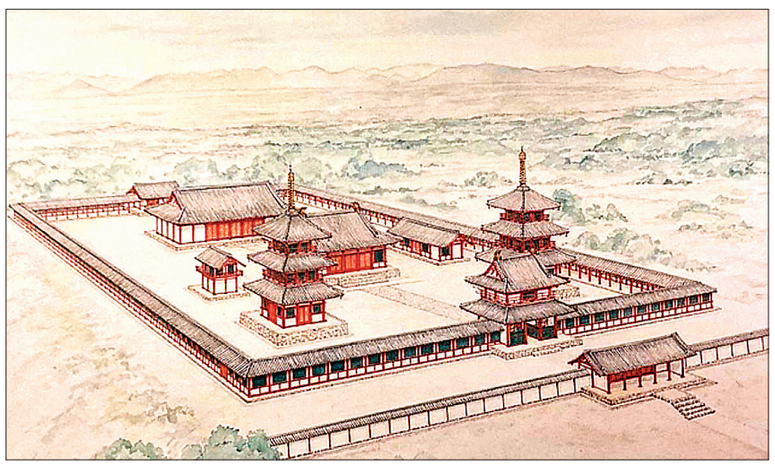
1천여 년 전 사라진 거찰 재주목

日, 코도(廣渡)폐사지의 비밀

천여 년 전, 대규모로 건립됐으나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은 채 폐사로 쇠락해 터만 남은 고대의 사찰이 있다. 폐사가 된 이유도 명확히 전하지 않았던 폐사지의 비밀이 조금씩 풀리면서 다시금 유적지가 주목받고 있다. 1월 30일 일본의 '코베신문'은 잊혀져 있던 폐사지를 특별 보도했다.

효고(兵庫)현 오노(小野)시에 소재한 코도(廣渡) 폐사지 유적. 7세기말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찰의 유적은 현재 공원으로 바뀌어 주민들이 찾고 있다. 오노시립박물관의 이시노 시게조 관장은 "이 공원이 폐사지라는 것은 지역 설화와 유구 등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70년대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 사찰은 중심에 금당이 있고, 금당 앞에 좌우로 3층 목탑이 있는 '야쿠시지(藥師寺)식 가람배치'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사찰은 전체가 회랑으로 둘러 쌓여있고 승방과 강당을 배치한 광대한 규모의 거찰이었음도 밝혀졌다. 이후 1980년 일본 정부는 이곳



코도지 복원 상상도. 사진출처=코베신문

을 국가사적으로 지정, 유적지를 공원으로 유지하고 자료관 등을 건설했다. 현재 유적지엔 금당과 강당, 동서 양탑의 기단이 복원돼 있으며 1/20로 축소된 복원 모형이 야외에 전시되고 있다.

이시노 관장은 "이정도의 광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찰의 이름이나 역사, 관련 인물 등의 정보가 전하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인근지역에 건립된 사찰들이 아직까지 건재한 것에 비하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이곳은 지역명을 따 코도지(廣渡寺) 유적, 혹은 코도 폐사지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비밀에 감싸져 있던 사찰의 흥망에 관한 역사가 최근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이시노 관장은 "발굴 조사후 편찬된 조사보고서에 더해 지금까지 쌓인 지역사 연구결과에 따라 폐사의 이유가 특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발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찰의 근처에는 원래 큰 하천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규모 촌락이 산재했던 것으로 전한다. 또한 이에 맞춰 지역 호족들이 자신들의 권위향상과 가문의 번영을 기원해 대규모 사찰의 조영이 유행했다는 점이 사찰이 건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지역사 연구에서 당시 사찰 근처에 있었던 하천이 거듭해서 범람하며 인명과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음이 밝혀졌다. 또한 당시 이 지역에 근간했던 호족들이 중앙정계에서 탄핵되거나 강의 범람 등의 자연재해에 따라 거찰을 유지할 정도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발굴조사에서도 귀족들의 내전이 격렬했던 11세기 이후로 사찰이 보수되었거나 존속했다는 유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시노 관장은 "일반적으로 병화나 자연재해로 사찰이 쇠락하는 것에 비해, 사회, 경제적 이유로 폐사가 됐다는 것과, 동시대에 건립된 사찰들은 현대에서 건재하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대만 비구니 스님이 헤비메탈을?

뱌오 벤 스님, 헤비메탈 그룹 '달마' 멤버로 활동

대만에서 6인조 헤비메탈 밴드 멤버로 활동 중인 비구니 스님이 화제다.

미국 언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osAngeles Times)는 1월 29일(현지시간) 대만의 6인조 헤비메탈 밴드 '달마'(Dharma) 멤버인 비구니 스님 뱌오 벤(Biao Ben · 50)을 소개했다.

뱌오 스님은 달마의 본격적인 공연전 무대에서 독경을 하며 오프닝을 한다. 멤버들이 일렉트로닉 기타와 드럼을 연주하는 동안 무대 한편에서 불구(佛具)의 하나인 요령 등을 친다.

그저 평범한 비구니였던 뱌오 스님이 헤비메탈 그룹에 속한 계기는 무엇일까. 뱌오 스님은 "지난해 드럼 강사이자 '달마'를 처음 만든 잭 텅(Jack Tung)을 만났다"며 "처음 헤비메탈을 들었을 땐 너무나 낯설었지만 멤버들과 함께 공연하면서 헤비메탈만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다고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헤비메탈로 표현하는 달마 멤버들의 열정도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헤비메탈이 부모와 함께 절에 다녔던 기억 외에 불교에 친숙하



지 않은 젊은 대만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느꼈다"고 했다.

"함께 활동할 비구니 스님을 섭외하기 위해 대만에서 4000여 불교 단체를 방문했다"는 잭 텅은 "나는 혹시라도 승가에 불쾌감을 줄까봐 걱정했지만, 뱌오 스님을 비롯한 여러 비구니 스님들이 환영했다"며 "16년 전 티베트 불교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그것(불교 음악)과 헤비메탈을 결합하는 임무를 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했다.

그룹 달마는 2019년 10월 첫 공연을 열며 정식 데뷔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연 금지 조치가 풀린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공연을 열었다.

박정현 객원기자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 가지 고질병 등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전수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